



폭설·한파 이렇게 대처합니다.



원예·특작시설 관리요령

* 내재해형 시설 규격 설치 *

지역별 설계기준 이상의 규격에 맞는 내재해형시설 설치

- ▶ 파이프는 반드시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(SPVHS, SPVHS-AZ) 사용
- ▶ 서까래, 가로대 규격 및 설치 간격 준수
- ▶ 하우스 동간 간격을 너무 좁게 설치하면 환기불량, 햇빛투입량 감소, 대설시 쌓인 눈에 의한 하우스 측벽시설 파손 우려

원예 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			
구분	적설심(cm)	풍속(m/s)	
비 닐 하 우 스	연동 비닐하우스(5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~2W형(07~1형) • 1~2W형 3종(10~1~2형, 12~1형) • 벤로형 1종 	53 55 57	40 40 36
	단동 비닐하우스(19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폭 5~5.8m(5종) • 폭 6m(2종) • 폭 7~7.6m(7종) • 폭 8~8.9m(5종) 	27~50 41~50 25~55 26~48	27~35 32~35 33~42 32~37
	과수 비닐하우스(3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포도 2종 • 감귤 1종 	40~44 50	35 40
	광폭 비닐하우스(8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치형 1종 • 트레스형 1종 • 보온재 외피복형 6종 	33 35 20~45	40 40 20~35
	인삼재배시설(20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철재 5종 • 목재 15종 	27~53 22~70	
간이버섯재배사(2종)	간이버섯재배사(2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폭 5.6m, 6.6m 	45~50	40

※ 자세한 내용은 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참조



가축·축사 관리요령



* 동절기 축사 사전관리 *

- ▶ 노후화된 축사시설 지주 보강, 정기적으로 안전점검
- ▶ 축사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단열시설, 적정 사육밀도 유지
- ▶ 폭설 등 기상재해 대비 1주일 분의 사료 확보
- ▶ 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전선 피복상태 점검 및 전열기구 정비
- ▶ 농장내·외부 청결 유지로 야생조류·동물 침입방지



* 피해우려 및 발생시 관리 *

- ▶ 가축은 기온이 떨어지면 추위로 인해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지므로 사료량을 10~20% 늘려 급여
- ▶ 외부 급수시설은 동파방지를 위한 피복과 전기시설 재점검
- ▶ 폭설 시 축사 파손에 대비 지붕에 쌓인 눈은 제거하고, 파손된 축사는 지주 보강 등 응급복구 실시
- ▶ 축사가 붕괴된 경우,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미지근한 물을 공급하여 저온에 의한 피해발생 예방



* ASF·구제역·고병원성AI 예방 차단방역 준수사항 *

- ① 남은 음식물 돼지 급여금지
- ② 동물, 축산물 구입자제
- ③ 구제역 백신접종 반드시 실시
- ④ 철새도래지 방문자제
- ⑤ 농장 출입제한 및 차량·사람 소독 철저, 출입기록 작성
- ⑥ 의심증상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



신고전화 1588-4060, 1588-9060



* 보험 관련 및 농업기술상담 문의 *

농작물재해 보험

풍수해 보험

농업기술상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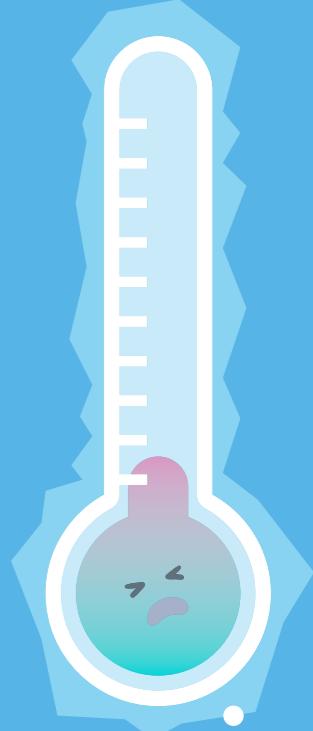
농지 소재지 관할 지역농협

지자체 각 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

농촌진흥청(1544-8572), 각 시·군농업기술센터



겨울철 자연재해 대비



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농가실천 사항

① 사전준비

- 노후화된 시설은 사전점검 및 보강지주 설치
- 온풍기 고장 및 정전에 대비 전기시설 점검
- 느슨해진 하우스밴드(끈)는 팽팽하게 당겨줌
- 과수 주간부에 흰색 수성페인트를 바르거나 보온재 피복(1m정도)
- 인삼 차광망 및 과원 방조망은 미리 걷어두고, 배수로 정비
- 간이버섯재배사는 차광막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한 겹 씌움
- 가뭄지속 시 관수 작업 및 낙엽제거 등 과원 청결유지



▲ 과수 주간부 벗짚피복 또는 수성페인트 칠하기



▲ 시설하우스 고정끈 설치 및 보강

② 강풍·대설·한파 특보발령시

- (강풍) 환기창을 모두 닫고 환풍기 가동으로 골조와 비닐 밀착
- (대설) 보강지주를 2~6m 간격으로 설치, 넉가래 등으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림, 가온하우스 커튼과 내부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 가동, 시설붕괴 우려시 비닐찢기 실시(안전사고 유의)
- (한파) 외부 창을 닫고 온풍기 등 가온시설 정상작동 확인, 정전 시 난방기 고장에 대비 응급자재(양초, 알코올 등) 준비



▲ 노후화된 시설 등은 보강지주 설치



▲ 하우스 위 눈 쓸어 내기



③ 피해발생시

- 신속한 복구로 동해나 저온피해 최소화
- 생육부진포장 엽면시비 및 보온재(비닐, 부직포 등)를 이용해 소형 터널로 보온
- 회복이 불가능한 포장은 대파 또는 재정식



▲ 시설파손, 저온피해 우려시 소형터널 설치



▲ 정전, 온풍기 고장시 양초·알코올 등 응급조치

응급대책 활용시 화재 위험성 및 산소부족으로 불이 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 필요